

“올해 목표는 무조건 우승 ‘지키는 야구’ 보여주겠다”

김종국 KIA 감독 출사표
투·타 키맨 김기훈·김도영
선수층 강화·가용전력 ↑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다. 이길 수 있는 경기는 확실히 잡겠다.”

지난 시즌 포스트시즌 진출을 목표로 삼았던 사령탑의 올 시즌 각오는 남달랐다.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은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지키는 야구’를 강조했다. 28일 시범경기를 마친 KIA는 내달 1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SSG 랜더스와 개막전을 시작으로 144경기 열전에 돌입한다.

지난 2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만난 김종국 KIA 감독의 시즌 목표는 분명했다. 우승이다.

김 감독은 “올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에 비해 선수층이 강화됐고 가용전력이 좋아져 작년과는 확실히 다르다. 야수진도 내야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스프링캠프 당시 올 시즌 보안점에 대해

‘불펜 선수층’을 짊어졌던 김 감독은 “투수들의 불펜 운영으로 지키는 야구를 할 것이다. 작년에는 필승조의 컨디션 난조와 부상 이탈로 팀 전체적인 경기력이 약해졌다”며 “올해는 전원 필승조라는 느낌으로 팀 강화를 시켰다. 특히 한 점 차 승부에서 더 강한 야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KIA의 올 시즌 선발은 토종 투수인 양현종과 이외리, 새 외국인 투수 앤더슨, 메디나. 5선발은 베테랑 임기영과 신인 윤영철을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거듭했다. 두 선수의 강점이 달라 감독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김 감독은 “임기영은 선발 경험이 풍부하고 윤영철도 신인답지 않게 경기 운영능력이 좋다. 두 선수 모두 자기 다른 강점을 가졌기 때문에 마운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발을 가진 김도영, 박찬호가 있고 오는 6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최원준까지 합류한다면 하위타선부터 상위타선까지 기동력 있는 야구를 할 수 있다. 한 점 승부로 이기는 야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김 감독이 거듭 강조한 ‘지키는 야구’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뒷문을 틀어막는 마무리 투수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는



김종국

“마무리 투수들이 작년, 재작년 시즌까지는 역할을 잘해줬는데 지금까지는 스피드나 구위가 기대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스피드가 작년에 비해 떨어진 것 같다. 마무리 투수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구위가 갖춰져야 한다. 비교적 지난 시즌보다 그런 퍼포먼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시즌 초반 정해영이 나가겠지만 미리 플랜B도 준비하고 있다. 정규시즌에 들어가면 또 달라질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팀 내 주목할 선수로는 투수 김기훈과 야수 김도영을 꼽았다. 김 감독은 “김기훈과 김도영 두 선수를 주축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두 선수 모두 준비도 잘했고 몸 상태도 좋다”고 밝혔다.

시범경기에서 호투를 펼친 앤더슨과 메디나에 대해서는 “NC전처럼 외국인 투수가 선발로 나갔을 때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원 기자

KIA 5승2무6패 최종 점검 완료

시범경기 최종전 롯데에 패배

KIA 타이거즈가 시범경기 5승2무6패로 2023시즌 최종 점검을 마쳤다. KIA는 2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범경기에서 고승민에 끝내기 투런포를 맞아 6-7로 역전패를 당했다.

팀당 14경기씩 총 70경기를 편성한 올해 시범경기에서 KIA는 비 때문에 치르지 못한 1경기를 빼고 5승 2무 6패를 거둬 두산 베어스와 함께 공동 6위에 자리했다.

시범경기 최종전은 5선발 후보인 임기영이 마운드에 올랐으나 합격점을 받기에는

부족했다. 이날 임기영은 롯데 타자들을 상대로 3이닝 동안 7피안타 무4사구 5탈삼진 4실점(3자책점)을 기록했다.

임기영은 앞서 열린 두 차례의 시범경기에서 5이닝 동안 2피안타 4볼넷 8삼진 무실점으로 활약하며 앤더슨-이외리-메디나-양현종에 이어 5선발 자리를 놓고 신인 윤영철과 함께 경쟁을 펼쳤다. 그러나 이날 제구가 흔들렸고 매 이닝 롯데 타선에 출루를 허용했다. 1회 말 선두 타자 안권수를 3루수 김도영의 실책으로 내보냈고, 도루 허용 후 렉스에게 1타점 적시 1루타를 허용하며 선제 실점했다.

타선이 3점을 뽑아내 승부를 뒤집었지만 2회 말에는 5타자 연속 안타를 맞으며 무너졌다. 롯데 유강남과 김민석에게 연속 안타를 맞아 2사 1,2루 위기에 놓인 임기영은 후속타자 황정민에게 2타점 3루타를 내주면서 역전을 허용했다. 후속타자 안지홍에게도 안타를 허용한 임기영은 렉스를 삼진 처리하며 이닝을 마쳤다.

제구 불안은 3회 말에도 이어졌다. 임기영은 3회 선두 타자 한동희에게 2루타를 내줬으나 고승민을 2루수 망블로 돌려세운 뒤 노진혁과 유강남은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이날 등판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한화 이글스가 9승 1무 3패로 시범경기 1위를, 삼성이 10승 4패 2위를 기록했다.

/조혜원 기자

프로야구 올스타전 7월 부산 개최

2007년 이후 16년만

오는 7월 15일 부산에서 열리는 ‘2023 프로야구 올스타전’ 개최지가 부산 사직구장으로 최종 확정됐다.

KBO 사무국은 서울 야구회관에서 열린 2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28일 발표했다. 부산에서의 올스타전 개최는 지난 2007년 이래 16년 만이다.

이와 함께 KBO 이사회는 감독, 코치, 선수의 올스타전 출전 수당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KBO 수비상이 신설된다. 이사회는 KBO리그 차원에서 수비의 가치를 인정하고 선수들의 수비 기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식 수비상을 제정하기로 했다. ‘KBO 수비상’ 후보와 수상자 선정 등은 추후 실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또한 부상자 명단 등재 연장을 간소화하고 등록일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KBO 이사회는 같은 부상으로 선수가 부상자 명단 등재 연장을 신청할 경우 기존 신규 신청서 및 진단서 제출 규정을 1회에 한해

추가 진단서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 규정은 1군 엔트리 말소일을 부상자 명단 등재일로 쳤으나 선수의 다진 상태를 보고 부상자 명단에 올리도록 선수의 마지막 경기 출장 다음 날부터 최대 3일까지로 엔트리 말소 기간을 유예하게끔 규정을 손질했다.

KBO 사무국과 프로 10개 구단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비롯한 최근 국제대회에서 잇달아 기대에 못 미친 성적을 낸 것에 위기감을 겪게 느끼며 리그 경기력과 국가대표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혜원 기자

동신대 박건태·김겨울 태권도개인선수권 ‘금’

동신대학교 태권도학과가 최근 통영에서 열린 제50회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박건태(1년)와 김겨울(1년)이다.

박건태는 겨루기 부문 남자 개인전 -58kg급에서 1위를, 김겨울은 여자 개인전 +73kg급에서 1위에 올랐다.



동신대학교가 최근 경남 통영시에서 열린 제50회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동호(1년)는 남자 개인전 -68kg급, 정성분(2년)은 +87kg급, 그리고 이윤경(1년)이 여자 개인전 -67kg급에서 각각 은

메달을 기록했다.

이해랑(1년)은 남자 개인전 -63kg급에서 3위에 올랐다.

/최진화 기자



결승골 세리머니 프랑스 킬리안 음바페(뒤)가 28일 오전(한국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유로2024 예선 아일랜드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동료 뱅자맹 파바르를 업싸인고 기뻐하고 있다. 프랑스가 1-0으로 이겼다. /EPA=연합뉴스

‘부활’ 고진영, LPGA 투어 시즌 2승 도전

디오 임플란트 LA오픈 출전

31일 개막 상금 175만 달러

유해란 등 한국 선수 22명

부활한 고진영이 한인 교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우승 사냥에 나선다.

고진영은 오는 31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스 버디스 이스테이트의 팔로스 버디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리는 LPGA투어 디오 임플란트 LA오픈(총상금 175만 달러)에 출전한다.

고진영은 지난해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났기에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고진영은 올해 들어 3차례 출전한 LPGA투어 대회에서 공동 6위-우승-공동 5위를 차지했다.

1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뿐 아니라 대회 때마다 상위권 성적을 냈다는 사실은 부상과 스윙 난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이다.

27일 끝난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에서는 목이 아파서 컨디션이 온전치가 않았지만, 우승 경쟁을 벌일 만큼 경기력과 정신력이 제 궤도에 올랐다.

대회가 열리는 팔로스 버디스 골프클럽은 미국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다. 팔로스 버디스 골프클럽에서 코윌인 토린스는 손잡는 한인 밀집 거주 도시다.

현지 한국 교민 응원이 아주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갤러리가 많을수록, 응원이 뜨거울수록 더 힘을 내는 강철 심장 고진영에게 유리하다.

알레르기 증세 때문에 아팠던 목도 거의 다 나아 컨디션도 살아났다.

이 대회는 2018년 시작돼 작년까지 로스앤젤레스 도심 월서 컨트리클럽에서 4차례 치러졌다가 올해는 해변에 위치한 팔로스 버디스 골프클럽으로 개최 장소를 옮겼다.

해안 절벽을 낀 코스라서 경치는 빼어나지만,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잘 대처해야 한다.

데뷔전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에서 공동 7위에 올라 LPGA투어 연착륙을 예고한 유해란은 신인 첫 우승에 도전장을 냈다.

유해란은 데뷔전에서 최종 라운드 챔피언십에서 경기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바람이 강한 제주도에서 2차례나 우승한 유해란은 해변 코스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진영과 유해란 말고도 전인지, 김효주, 최혜진, 김세영, 이정은, 지은희, 김아림, 안나린, 최은정, 양희영, 유소연, 신지은, 박성현 등 한국 선수 22명이 출전한다.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을 건너뛰고 휴식을 취한 뒤 올해 미국 본토 대회에서 처음 나서는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 넬리 코다(미국), 아타야 티미핀(태국) 등이 우승을 노리고 출사표를 냈다.

하타요카 나사(일본)는 대회 2연패를 노린다.

/연합뉴스